

고토바인(後德河院)과 제덕(帝德)*

— 조큐의 난(承久の乱) 수용양상에 대한 고찰 —

박은희**

87bara@hanmail.net

Contents

1. 서론
2. 본론
 - (1) 전쟁 책임론과 제덕(帝德)
 - (2) 조큐의 난의 재조명과 성군(聖君) 고토바인론
 - (3) 『헤이케모노가타리』와 조큐의 난
3. 결론

Abstract

承久三年、日本歴史上未曾有の事態が発生した。幕府を打倒するよう蹶起を促した後鳥羽院が幕府によって配流されたのである。しかも仲忝天皇が廢位され、幕府の意思により後堀河天皇が擁立された。天皇継承にまで幕府の意向が働く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前代未聞の事態を目の当たりにした同時代の知識人は神国思想と矛盾する現実に戸惑いながら、王権の新しいあり方を模索することになり、その結果王権に関する多様な言説が現れることになる。悪王として後鳥羽院を切り捨てることによって、一介の武士による天皇の配流を説明しようとした『六代勝事記』はその典型的な例だと言える。時間が経つにつれて悪王としての後鳥羽院像にも変化が現れることになる。『五代帝王物語』や『増鏡』のように聖君としての後鳥羽院像が現れ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認識の変化には後鳥羽院の孫である後嵯峨天皇の即位や、後醍醐天皇の建武新政を支持する見方が影響をおよぼしている。

一方、物語においても承久の乱は大きな意味合いをもっている。王権のあり方に関する悩みの痕跡が同時期生成、流動した軍記物語の諸作品に反映されているのである。特に『平家物語』の場合、文覚怨霊譚のなかで怨霊譚の形をとって承久の乱が語られている。承久の乱を文覚怨霊の仕業として説明することによって後鳥羽院の致命的な過失に関する具体的な事柄は省略されている。『平家物語』は天皇と幕府の敏感でかつ微妙な問題はうまい具合に避けて承久の乱の結果だけを叙述しているのである。

Key Words : 承久の乱、後鳥羽院、天皇制の危機、王権、帝德、怨霊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54-A00133)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1. 서론

서구 합리주의에 반기를 들고 일본 고유의 가치체계의 회복을 촉구한 『국가 품격』에서 후지와라 마사히코(藤原正彦)는 중일 전쟁을 관동군의 폭주에서 비롯된 비열한 전쟁으로 정의내리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 정부, 육군 모두가 (전쟁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다.¹⁾

그는 중일 전쟁의 책임은 쇼와(昭和) 천황이 아닌 관동군에게 있으며, 천황은 오히려 군부의 판단에 반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천황의 책임은 책 어느 곳에도 거론되어 있지 않다. 중일 전쟁에 대한 이와 같은 사유방식에 놀람을 금치 못하는 한편, 위의 발언을 통해 천황이 가담한 실패한 전쟁의 경우 어떻게 윤색, 각색되는가에 대한 역사적 통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천황과 전쟁 책임 문제는 근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근대 이전에도 천황이 가담한 실패한 전쟁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역사상 천황이 가담한 실패한 전쟁의 경우 어떻게 서술되었을까? 본고에서는 그 전형적인 예를 중세 초에 일어난 조큐의 난(承久の亂)을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1221년 당시 상황(上皇)이었던 고토바인(後鳥羽院)은 막부 토벌을 위해 꺾기할 것을 촉구한다. 조큐의 난이 발발한 것이다. 조큐의 난은 천황가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고토바인이 가마쿠라(鎌倉)막부에 선전포고하여 무력충돌을 야기한 사건이다. 그러나 고토바인의 기대와는 달리 미우라(三浦)씨의 꺾기도 엔랴쿠지(延暦寺) 승병들의 꺾기도 없이 압도적인 열세에 밀려 붕괴 한 달 만에 막부 토벌 명령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고토바인의 꺾기에 대한 막부의 대응은 가혹했다. 막부는 고토바인, 준토쿠인(順徳院), 쓰치미카도인(土御門院) 세 상황을 유배시키고, 추교(仲喬) 천황을 폐위, 유배 보내었다. 막부는 천황과 상황을 유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황을 자신의 뜻대로 옹립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황가의 권위가 실추되었음은 물론, 이후 원정(院政)은 기능하지 않게 되고 막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황가를 능가하게 된다.

1) 藤原正彦(2005) 『国家の品格』、新潮社、p.121

세 명의 상황과 천황의 유배를 초래한 미증유의 사건을 당시 지식인들은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패전 이후 천황의 인간 선언과 전쟁 책임을 둘러싸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였듯이 조큐의 난 이후 지식인들은 기존의 가치체계와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설명했다. 아마테라스 오카미(天照大神)의 자손인 천황이 일본을 다스린다는 신국(神國)사상과 일개 무사에 의해 천황이 폐위되는 현실과의 상충을 어떻게 논리화할 것인가가 시대의 과제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13세기 중엽은 강대해진 막부의 힘과 실추된 천황의 권위를 배경으로 천황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나온 시기이다. 아울러 이 시기는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를 비롯한 군키(軍記) 모노가타리가 생성, 유동(流動)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세를 대표하는 『헤이케모노가타리』를 연구함에 있어 조큐의 난 이후의 정치, 사상적 상황 즉, 왕권에 대한 다양한 담론은 작품 이해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큐의 난 발발 후 지식인 사회에 일어났던 다양한 담론을 소개하고, 또한 이와 같은 언설이 『헤이케모노가타리』를 비롯한 문학 작품에 어떻게 수용, 변용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즉, 조큐의 난 이후 천황제를 둘러싼 사상사적 문화사적 담론을 고찰하여 『헤이케모노가타리』 재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소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본론

(1) 전쟁 책임론과 제덕(帝德)

- 『로쿠다이쇼지키(六代勝事記)』를 중심으로

조큐의 난이 발발하고 고토바인과 막부는 무력충돌을 하게 된다. 이 때 고토바인이 동원한 군사의 수는 2만 수천 명, 막부는 19만 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이에 맞선다. 고토바인을 따르는 소위 관군의 수는 막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된다. 2만과 19만의 숫자가 상징하듯 사건은 막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난다. 충돌 한 달만에 고토바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철회하고 패배를 자인하기에 이른다.

『아즈마카가미(吾妻鏡)』에 따르면 승패가 정해진 6월 15일, 고토바인은 사신을 가마쿠라에 보냈다고 한다. 이는 패전에 대한 고토바인의 첫 대응이라 할 수 있는데, 『아즈마카가미』는 칙사가 가지고 간 원선(院宣)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번 싸움은 짐(고토바인)의 뜻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간신들이 행한 일이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막부의) 뜻에 따라 명령을 내릴 것이다. (중략) (조정에서의) 무사의 알현을 이미 금했다는 내용을 거듭 말씀하셨다 운운.²⁾

서신의 내용은 이번 전쟁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가신들이 함부로 저지른 일이며, 앞으로 모든 일은 막부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인용의 첫 구절, 즉 이번 전쟁을 간신들이 행한 일이라 규정내리고 있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토바인 스스로 자신이 일으킨 전쟁을 부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사건, 실패한 전쟁으로부터 천황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사건과 천황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방법이다. 고토바인이 주체적으로 획책한 사건이 아니라 신하들의 모의에 의한 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려 한 것이다.³⁾

이 경우 고토바인을 대신해서 실패한 거사의 책임을 질 희생양이 필요하게 된다. 고토바인이 보낸 서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쟁의 책임을 질 간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천황 또는 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희생양을 내세워 사건을 조작, 은폐하는 예는 모노가타리 속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헤이케모노가타리』를 예로 들면, 시시가타니(鹿谷) 사건⁴⁾의 후지와라노 나리치카(藤原成

2) 龍肅訳註(1997) 『吾妻鏡(四)』、岩波書店、p.205

3) 천황과 실패한 전쟁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중일 전쟁에 대한 후지와라 마사히코 발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 시시가타니 사건은 기요모리(清盛)의 전횡을 막기 위해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을 비롯한 측근들이 시시가타니 산장에 모여 일을 도모한 사건으로 가담자의 배신에 의해 실패한 음모이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이 사건의 발단을 헤이케에 대한 나리치카의 개인적 원한이라는 허구를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사건의 발단 단계를 지나 기요모리의 가혹한 사후처리

親), 호주지(法住寺) 전투⁵⁾의 다이라노 도모야스(平知康)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큐의 난을 소재로 한 『조큐키(承久記)』의 경우도 간신들의 참언에 대한 서술이 보인다. 사토 이즈미(佐藤泉)가 지적하듯이, 특히 마에다케(前田家)본의 경우 간신들의 참언에 대한 서술이 두드러진다⁶⁾. 이와 같은 서술태도는 자연히 사건의 책임자로서의 고토바인의 인상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다네요시(胤義)와 히로쓰나(広綱)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의 참언을 호주지 전투에서의 도모야스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은 주의할 만하다. 그러나 간신의 이름이 발화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이들의 구체적인 활약상이 없어 시시가타니 사건이나 호주지 전투처럼 작품 전체의 플롯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신에서 고토바인은 간신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아울러 앞으로의 일은 모두 막부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미 자신의 거처에 무사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막부를 타도할 힘과 의지가 없음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토바인의 발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막부는 천황을 경질시키고 세 명의 상황과 두 왕자를 유배 보내는 등 참혹하기 그지 없는 사후처리를 한다. 세 상황의 유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일개 무사에 의해 천황과 상황이 줄줄이 유배당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식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사건 직후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은 시기에 쓰인 『가이도키(海道記)』는 그 충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놀람을 금치 못할 일이다. 조큐 3년 6월 중순 천하에 불온한 바람이 불더니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졌다. 장수가 수도 교토를 뛰쳐나가고 싸움을

에 이르면 급격히 고시라카와인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시라카와인조차 무시하는 기요모리의 안하무인하는 태도가 강조된다.

5) 헤이케를 대신해 교토를 장악한 기소 요시나카(木曾義仲)의 전횡에 고시라카와인이 무력으로 맞선 사건으로 조정과 무가 집단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조큐의 난의 선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무인과 무기를 든 귀족, 승병의 싸움은 순식간에 무사 집단의 승리로 끝이 난다. 이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요시나카에 대한 도모야스의 개인적인 원한을 강조하고, 전투 중에 주술에 의지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강조하여 패배에 대한 냉소를 도모야스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6) 佐藤泉(1989) 『『承久記』考察—後鳥羽院の周辺—』 『軍記と語り物』25号, p.64

할 무사들이 시골 동국지방에서 전장으로 몰려들었다. 격심한 천둥은 구름을 진동시키고, 해와 달은 빛을 잃고, 험악한 병장들이 지축을 뒤흔들며 활과 칼이 강한 힘을 발휘했다. (중략) 천황들은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건너 떠나면 서쪽 땅으로 귀향을 떠나고, 귀족과 장수들처럼 신분이 높은 이들은 서울에서 먼 관동에서 참수되었다. (중략) 참말인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 비단을 두르고 옥으로 장식한 왕의 침상은 주인을 잃어 무사의 숙소가 되었으며, 황금과 비단 등의 공물은 모두 시골 무사의 재산이 되었다⁷⁾.

인용은 『가이도키』의 작자가 여행 도중 어느 저택에서 후지와라노 무네유키(藤原宗行)의 글을 보고난 후의 감상이다. 후지와라노 무네유키는 고토바인의 측근으로 조큐의 난 직후 참수에 처해진 인물이다. 인용을 통해 『가이도키』의 작자는 조큐의 난을 천황을 포함한 조정과 동국지방 무사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왕의 침상이 무사의 숙소가 되고 왕에게 가야 할 공물은 무사의 재산이 되었다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표현에서 왕권의 침탈에 대한 동시대 지식인의 깊은 회한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왕권의 실추는 위와 같은 회한의 영역을 넘어 패전의 책임 문제, 그리고 천황제 자체에 대한 사상사적 재검토를 낳기에 이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덕치주의 관점에서 고토바인을 비난한 『로쿠다이쇼지키(六代勝事記)』이다. 『로쿠다이쇼지키』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큐의 난을 계기로 쓰인 역사서로,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다카쿠라(高德) 천황에서 고후리카와(後堀河) 천황까지의 6대 천황의 선덕과 악덕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후대 천황이 치세함에 있어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확고한 집필의도를 가지고 쓰였다는 점에서 중세 역사서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⁸⁾ 앞서 고토바인이 막부에 보낸 칙서에서 보았던 궁색한 변명과는 대조적으로 『로쿠다이쇼지키』는 무리하게 막부 토벌을

7) 長崎健校注訳(2002) 『新日本古典文学全集 中世日記紀行集』、小学館、p.40

8) 유게 시게루(弓削繁)는 중세의 역사 서술의 특징으로 현실 비판성을 들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 즉 규범으로 삼기위해 문자화했던 이전 시대의 역사서와는 달리 특정 위정자를 독자로 상정하여 시무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역사서가 출현한 것이다. 막부와 조정의 충돌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구간쇼(愚管抄)』, 조큐의 난 후 새 천황 고후리카와에게 정치의 지침을 가르쳐주고자 쓰인 『로쿠다이쇼지키』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弓削繁(1999) 『『承久記』と鎌倉期の歴史物語』 『軍記文学研究叢書』、汲古書院、p.42)

추진한 고토바인의 실책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우선 그 문제의식이 나타나 있는 곳을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원래 신국(神國)이다. 인왕(人王:천황)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미 아 마테라스오카미의 황손이다(황손임을 의미한다). 무엇 때문에 세 천황이 한꺼번에 유배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일까.⁹⁾

인용은 『로쿠다이쇼지키』~결말 부분에 『당시의 사람(時の人)』과 『도리를 아는 현자(心有る人)』와의 문답이라는 형태로 집필의도와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아마테라스오카미의 자손인 황손이 일본을 다스린다고 하는 신국 사상과 세 천황이 유배된 현실과의 괴리야말로 당시 지식인이 사상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상 과제였음을 인용을 통해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로쿠다이쇼지키』는 어떠한 논리로 신국사상에 저촉됨이 없이 고토바인을 실패한 전쟁의 책임자로 설정하고 있을까?

우선 『로쿠다이쇼지키』는 제왕학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제범(帝範)』을 인용, 임금의 두 가지 덕목으로 지인(知人)과 무민(撫民)을 이야기한다. 지인은 선정(善政)을 보좌할 수 있는 충신을 알아 볼 수 있는 안목을 의미하며, 무민이란 백성의 삶을 돌보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인과 무민의 두 잣대를 기준으로 고토바인의 치세를 악정(惡政)이라 규정한다.

①(고토바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마구 권세를 부리는 즐거움에 취하여 백성 돌보는 것을 잊으셨고, 게다가 총애하는 여인의 간섭이 심해져 위정(爲政)에 있어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하략)¹⁰⁾

② 고토바인이 지금까지 펼친 정치는 음양의 변화를 생각하는 덕정(德政)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연(燕)나라 단(丹)처럼 까마귀의 머리가 하얗게 되어 귀경(歸京)이 허락되는 그와 같은 기대를 품기 어렵다. (중략) 39년간의 영화도 고토바인의 악정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스러지고 (하략)¹¹⁾

9) 弓削繁(2000) 『六代勝事記 五代帝王物語』三弥井書店、p.95

10) 弓削繁(2000) 전게서、p.75

11) 弓削繁(2000) 전게서、pp.90~91

위의 인용에 따르면 고토바인은 백성을 돌보지 않는 정치, 공명정대하지 않은 정치를 했으며, 자신이 총애하는 애첩의 말에分別심을 잃어 옳은 정치를 펴지 않았다. 심지어 이와 같은 악정을 펼쳤기 때문에 유배지 오키(隱岐)에서 수도 교토로 돌아올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인용에서 악정은 고토바인의 비운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된다. 「천자가 보위에 얼마만큼 있는가 그 장단은 정치의 선악에 의한다」고 단언함으로써 고토바인 말년의 비운은 그 자신의 악정에 의한 것으로 규정된다. 즉 고토바인은 폭군이기에 유배지 오키에서의 죽음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로쿠다이쇼지키』의 저변을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고토바인은 이와 같은 악정을 펼쳤을까. 그 원인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군주의 품성, 자질론인 것이다. 다음은 안토쿠(安徳) 천황의 뒤를 이어 즉위한 고토바인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인용문에 실린 고토바인평은 조큐의 난과 고토바인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으로, 『헤이케모노가타리』~ 『조큐키』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어 텍스트간의 영향관계, 전후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치세는 15년. (고토바인은) 예와 능 두 가지를 배웠지만 그 중에서 문장은 소홀히 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나셨다. 나라의 장로들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문(文)을 경시하고 무(武)를 숭상하는 이 천황에게 군주로서의 덕이 없음에 깊이 염려하였다. 중국의 오(吳)왕 부치는 검객을 좋아했기 때문에 천하에 (무예를 연마하다) 다친 이가 많았으며, 초(楚)왕은 가는 허리의 미인을 좋아했으니 궁중에 굶어 죽는 여성이 많았다고 한다. 다치고 굶주리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윗사람이 좋아하면 아랫사람이 따라 가는 탓에 국가가 위태로워 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¹²⁾

인용문은 춘추전국시대 검객을 아꼈던 오왕의 전례를 들어 무를 숭상하고 문을 소홀히 하는 고토바인의 성정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무를 숭상하는 고토바인의 성격은 인용 마지막 부분에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상황, 즉 조큐의 난과 연결되어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조큐의 난의 원인으로 고토바인의 무를 숭상하는 품성을 거론함으로써 천황제 존립 자체를 위협한 조큐의 난의 부정적인

12) 弓削繁(2000) 전계서, pp.70~71

결과는 모두 고토바인 개인의 부정적인 품성, 즉 무를 숭상하는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환원되고 있다.

인용은 덕치주의를 강조하며 위정자가 무를 숭상하는 것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즉 호겐(保元), 헤이지(平治)의 두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의 힘은 이미 입증되었다. 구사카 쓰토무(日下力)의 표현처럼 고토바인의 시대는 막부의 존재를 용인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정치에서 「무」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시대이다.¹³⁾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군주 자신이 무예를 연마하고 무를 숭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교(公卿), 덴조비토(殿上人)는 갑옷을 입고 깃발을 올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사의 모습을 흉내 냈지만 어찌 전투하는 법을 알 수 있겠는가.¹⁴⁾

인용에서 고토바인측 가담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무사인 양 행동한다. 그러나 이들은 귀족들로 무사 가문 출신이 아니다. 당시 무사 이외의 귀족, 승려가 무예를 연마하는 것, 나아가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했음을 호주지 전투 관련 기사를 통해 손쉽게 엿볼 수 있다.¹⁵⁾ 귀족이 무기를 직접 손에 드는 것 자체가 비난 받을 행위였다. 하물며 무예에 몰두하고 스스로 전투를 일으킨 군주가 있다면 그 성정 자체가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무를 숭상하는 덕이 모자란 군주는 『로쿠다이쇼지키』의 조큐의 난 이해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왜냐하면 아마테라스 오카미의 자손인 고토바인과 그

13) 榎木孝惟他校注(1998) 『新日本古典文学大系 保元物語 平治物語 承久記』、岩波書店、p.577

14) 弓削繁(2000) 전계서、p.85

15) 『로쿠다이쇼지키』는 호주지 전투 참패의 원인으로 무사 이외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헤이케모노가타리』 역시 호주지 전투 묘사에 있어 이와 같은 이들의 비극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미삼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굴욕스럽게 생명을 구한 하리마노추조 마사카다(播磨中将雅賢), 명경박사(明鏡博士)이면서 갑옷을 입고 싸움에 참여했다 무사의 손에 죽은 몬도노카미 치카나리(主水正近業) 등이다. 이들은 도시 하층민의 시선을 통해 희화화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를 위해 싸운 관군이 참패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논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덕(帝德)>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덕>이라는 잣대를 통해 고토바인을 덕이 없는 군주로 과감히 도려내었지만, 그것이 천황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천황의 신성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천황제라는 틀 내에서 천황이 유배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제덕>이고 천황 품성론이라 할 수 있다. 『로쿠다이쇼지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고토리카와인 천황에 대한 축언(祝言)은 고토바인의 희생위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조큐의 난의 재조명과 성군(聖君) 고토바인론

— 『오대 제왕 이야기(五代帝王物語)』를 중심으로 —

『로쿠다이쇼지키』를 중심으로 살펴본 무를 숭상하는 군주로서의 고토바인상은 『조큐키』 『헤이케모노가타리』에도 보여, 이들 작품에 끼친 『로쿠다이쇼지키』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헤이케모노가타리』와의 영향관계,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무를 숭상하는 군주, <제덕>이 결합된 군주로서의 고토바인의 이미지는 조큐의 난의 참혹한 결과와 맞물려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동시대인들에게 남겼다. 고토바인 자신의 손으로 당시 이름을 떨치던 강도 가타노하치로(交野八郎)를 잡았다는 『고콘초몬주(古今著聞集)』의 설화는 무예를 연마하는 고토바인 모습의 증폭, 과장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토바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고정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입장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변하게 된다. 고토바인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보이는 텍스트, 나아가 조큐의 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텍스트를 고찰하고 그 차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오대 제왕 이야기(五代帝王物語)』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자. 『오대 제왕 이야기』는 고토리카와 천황부터 가메야마(龜山) 천황까지의 다섯 천황의 사적(事績)과 사건을 쓴 역사 모노가타리(歴史物語)이다. 성립연대는 13세기 말

에서 14세기 초로 추정된다. 역사적 사실여부를 떠나 작자가 들은 이야기, 즉 풍문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 사람의 인지를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많이 소개되는데, 마쓰바야시 야스아키(松林靖明)는 『오대 제왕 이야기』~역사서술의 특징으로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사건의 나열을 들고 있다.¹⁶⁾

고토바인 치세가 그렇게도 훌륭했으니 그것을 모범으로 삼고 계승하여 천황(고호리카와)도 신하도 조심하여 사람들의 비난을 사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였으니 마음만은 선정(善政)을 베풀고자 했다.¹⁷⁾

인용은 고호리카와인이 보위에 오른 사실을 기록하는 문장의 일부분이다. 고호리카와인에게 천황이 될 운이 있었다고 언급한 후, 고토바인 치세를 모범으로 삼아 선정을 베풀고자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고토바인은 어느새 모범적인 군주로 그려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로쿠다이쇼지키』의 내용, 즉 약정을 펼치는 <제덕>이 결여된 군주로서의 고토바인과는 상당한 거리가 먼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고토바인 치세를 칭송하는 이와 같은 서술태도는 『오대 제왕 이야기』 곳곳에 보인다. 그 단적인 예로 고토바인 후임을 정할 때의 일화를 들 수 있다. 일화 속 고토바인은 자신의 후임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기도와 정진을 통해 아마테라스 오카미의 신의(神意)를 얻어 제비뽑기에 의해 결정했다. 이 일화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고토바인의 『숙고와 현명한 판단(聖慮賢明)』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성군으로서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고토바인 치세에 대한 칭송은 고토바인 황통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고토바인 등급 일화 속에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안토쿠(安徳) 천황이 헤이케(平家)와 더불어 서쪽으로 떠난 뒤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은 그 후임을 정하기 위해 관상쟁이를 불러 점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 점괘에도 고토바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조큐의 난이 일어나 고호리카와인이 보위에 올랐지만 두 천황(後堀河, 四條)만이 보위에 오를 인연에

16) 松林靖明(1985) 『『五代帝王物語』の怪異譚—後鳥羽院の影—』 『青須我波良』, p.3

17) 弓削繁(2000) 전계서, p.102

의해 겨우 20여년 정도 (그 자리를) 유지하였을 뿐, 결국 신의 뜻이 헛됨이 없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하다.¹⁸⁾

인용은 고토바인이 천황이 된 것도 그리고 그 자손이 대대로 천황의 자리에 오른 것도 모두 신의 뜻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막부에 의해 천황이 고토리카와 인으로 바뀌었지만 결국 신의 뜻대로 황통은 다시 고토바인의 자손에게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토바인 인물평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우선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들 수 있다. 즉 『오대 제왕 이야기』~서술 시점이 조큐의 난으로부터 일정 정도 떨어져 있어 조큐의 난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생생한 느낌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오대 제왕 이야기』를 쓴 저자는 앞서 인용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즉 천황가의 혈통이 고토바인 자손에게 돌아오는 것을 본 것이다. 고토바인 자손이 다시 천황이 되었으니 앞서 살펴보았던 『로쿠다이쇼지키』처럼 무턱대고 고토바인의 결점과 악정만을 강조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오대 제왕 이야기』는 고토바인을 적극적으로 찬미하지는 않지만 고토바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임금이 열심히 세상을 다스리니 사방의 파도가 조용하고, 부는 바람도 가지를 흔들지 않으며 세상은 잘 다스려지고 백성은 살기 편하니 널리 아름다운 파도 일본 밖까지 흘러나가니, 크나큰 은혜 쓰쿠바(筑波)산 그늘보다 더 깊다. 모든 도에 능통하니 나라에 재능 있는 사람이 많고 옛날 부럽지 않은 치세였다. ¹⁹⁾

인용을 읽으면 누구나 이상적인 정치를 편 군주에 대한 찬미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군주의 이름이 고토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놀람을 금치 못할 것이다. 『로쿠다이쇼지키』의 혹독한 고토바인평을 알고 있다면 180도 다른 관점에 더욱더 당황할 것이다. 위의 인용은 『마스카가미(増鏡)』의 한 구절로, 고토바인 치세를 이상적인 치세로 극대화하고 있다. 귀족들이 알고 갖추어야 할 모든 도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려 살기 편한 시대를 만든

18) 弓削繁(2000) 전계서, pp.116~117

19) 岩佐正他校注(1956) 『古典文学大系 増鏡』、岩波書店、p.253

천황으로 칭송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지인과 무민을 잣대로 고토바인을 악정을 베푼 군주로 정의 내렸던 『로쿠다이쇼지키』와 마찬가지로 『마스카가미』 역시 무민을 잣대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두 책은 각각 악정과 선정의 전형으로 고토바인 정치를 정의 내리고 있다. 각각의 입장에 따른 관점이라 어느 한 쪽만을 진실이라 말할 수 없는데, 다만 여기서 『마스카가미』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마스카가미』는 고다이고(後醍醐) 천황의 막부 토벌과 신정(新政)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쓰인 책이다. 즉 막부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천황의 친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쓰였다. 조큐의 난은 천황가와 막부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고다이고 천황의 막부 토벌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마스카가미』에는 고토바인을 미화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니시자와 쇼지(西沢正二)는 이와 같은 『마스카가미』의 고토바인 인물평의 특징을 헤이안(平安) 왕조 귀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²⁰⁾ 즉 와카(和歌)를 비롯한 귀족적인 교양이 풍부하고 우아한 궁정생활을 즐기는 군주로서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스카가미』에는 고토바인의 책략가적인 면모는 물론이거니와 앞서 언급했던 무예를 즐기는 모습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다. 조큐의 난을 언급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패배 이후의 처지를 동정하는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스카가미』의 성군론은 『로쿠다이쇼지키』의 폭군론을 정반대적 관점에서 뒤집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큐의 난과 고토바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동정적인 시선의 강조는 고다이고 천황의 두 번에 걸친 막부토벌과 겐무(建武) 신정을 경험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로쿠다이쇼지키』와는 다른 새로운 고토바인평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관점의 역전이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고토바인 손자인 고사가(後嵯峨) 천황이 보위에 오름으로써 다시 고토바인 혈통이 황통을 잇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사가 천황의 등극의 전제가 되는 시조(四條) 천황의 요절에는 고토바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언설이 있는데 고토바

20) 西沢正二(1967) 『『増鏡』に描かれた後鳥羽院』 『日本文芸論稿』, pp.36~38

인 원령설이 그것이다. 원령담 속에 나오는 고토바인의 모습에는 생전에 행한 정치의 선악은 의미가 없다. 다만 조큐의 난을 일으킬 정도의 기량을 지닌 군주였다는 것과 원한을 품은 채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은 강력한 원령 탄생의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령담 속에서 군주로서의 덕은 의미가 없다. 원령으로서의 위세가 문제가 될 뿐이며, 이는 원한의 정도, 강한 개성과 관련될 뿐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원령으로서의 고토바인의 특징을 살피는 것은 성군론, 폭군론을 떠난 새로운 견지에서의 인물평이라 할 수 있다.

고토바인 원령은 스토쿠인(崇徳院)과 더불어 중세를 풍미한 대표적인 원령이다. 둘은 천황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스스로 난을 일으켜 유배된 비운의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원령이 된 둘은 같이 몰려다니면서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주요 정치적 인사를 급사시키고, 나아가 체제 전복을 꾀한다고 여겨졌다. 야마다 유지(山田雄司)가 지적하고 있듯이, 일단 가라앉았던 스토쿠인 원령에 대한 언설이 되살아나 『호젠모노가타리(保元物語)』와 같은 형태로 구체화된 데에는 고토바인 원령에 대한 언설이 큰 영향을 미쳤다.²¹⁾

고토바인 원령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한 정국을 틈타 급속도로 퍼졌다. 고토바인의 원령화에 대한 가능성은 고토바인 생존중에 이미 거론된다. 예를 들면 『메이게쓰키(明月記)』가로쿠(嘉祿) 원년(1225) 기사에 「고토바인 아전(隱岐の掾)」이라는 이상한 새가 비파호(琵琶湖)에 무리지어 나타났는데 그 새를 잡아 먹은 사람은 급사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메이게쓰키』안테이(安貞) 원년(1227)년 기사에 덴구(天狗)에 얽힌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스토쿠인의 이름과 더불어 고토바인의 이름이 보인다. 주교천황을 대신해 황위를 이었던 고토리 카와인과 중궁의 연이은 죽음(1234년, 35년)은 고토바인 원령, 또는 생령(生靈)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토바인은 1139년 2월 22일 결국 오키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교토로 돌아오지 못한 채 유배지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16일 고토바인의 유골이 마침내 교토로 돌아오게 된다. 고토바인의 죽음은 조큐의 난의 사실상의

21) 山田雄司(2001) 『崇徳院怨靈の研究』、思文閣出版、pp.200~201

종결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토바인의 죽음과 그 유해의 입성은 새로운 차원에서
의 싸움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들의 우려대로 고토바인 원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마쿠라 막부를 흔들기 시작한다. 고토바인 사후, 1239년과 1240
년 사이에 조큐의 난 당시 막부 편에 서서 공을 세웠던 인물인 호조 도키후사
(北條時房)와 미우라 요시무라(三浦義村)가 급사하고, 친막부 인사인 구조 미
치이에(九條道家)가 갑자기 병상에 눕는 일이 발생했다. 급기야는 막부의 정무
를 담당하는 곳인 만도코로(政所)가 방화에 불타 버린다. 화재는 막부 멸망의
징후로 여겨졌다.

일련의 불길한 사건에 힘입어 고토바인 원령을 달래는 위령행사가 이루어지
고, 두 번의 시호가 하사되지만 고토바인 원령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뿐
이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토바인 원령의 활약상,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불안감은 1243년 1월 시조(四條) 천황이 급사함으로써 절정에 다다른다. 그러
나 고토바인의 손자 고사가 천황이 등극하고 야스토키(泰時)가 죽음으로 인해
멈출 줄 모르던 고토바인 원령의 기세는 급격히 약화된다. 이상 간략하게 고토
바인 원령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생전의 고토바인 못지않게 원령으로서
의 고토바인 역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 절
에서는 『헤이케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모노가타리 속 조큐의 난과 고토바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 『헤이케모노가타리』와 조큐의 난

13세기 중엽, 중세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의 하나인 군키 모노가타리의 여러
작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생성된다. 고대에서 중세로의 변혁기를 다루고 있는
이들 작품은 필연적으로 무사집단의 등장과 전란, 막부의 형성을 다루고 있다.
막부라는 새로운 정치형태의 출현을 통해 기존의 천황과 조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는 재조명되고, 특히 조큐의 난은 왕권에 대한 다양한 언설을 양산하는 기
폭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귀족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조큐의
난을, 그리고 그 주인공 고토바인을 군키 모노가타리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
까? 대부분의 군키 모노가타리는 내용이 다른 다양한 판본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는 굳이 모노가타리 전반을 통틀어 논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본고에서는 우선 그 첫 단계로 『헤이케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조큐의 난과 고토바인의 죽음, 그리고 원령의 활동은 1230년대 가장 선명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무렵 원형이 만들어진 『헤이케모노가타리』에는 조큐의 난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모노가타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의 하한선이 로쿠다이(六代)의 죽음²²⁾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조큐의 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기사가 있는데, 엔교본(延慶本) 말미에 실려 있는 몬가쿠(文覺) 원령담이 바로 그것이다.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고토바인을 묘사하고 있을까? 물론 조큐의 난 이전의 고토바인에 관련된 일화도 많다. 장면 장면의 고토바인의 인물 조형이 워낙 다양하여 하나의 통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케히사 쓰요시(武久堅)는 『헤이케모노가타리』의 고토바인에 대해 동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지 않으며, 고토바인을 말할 때의 위상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²³⁾ 그러면 몬가쿠 원령담의 경우 어떤 위상으로 고토바인을 서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로쿠다이쇼지키』에도 공통 본문이 보이는 무를 숭상하는 고토바인 평부터 살펴보자.

이 천황은 예능을 배움에 있어 문장을 소홀히 하고 무예를 잘 하셨다. 한 나라의 군주가 문장을 소홀히 하고 무를 중시하는 것은 군주로서의 덕이 부족한 것이다. 이를 염려하는 이유는 오왕이 검객을 좋아하니 천하에 상처를 입은 자가 많았고, 초왕이 가는 허리를 좋아하니 궁중에 굶어 죽는 이가 많았다(기 때문이다). 상처를 입고 굶주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인데도 윗사람이 좋아하니 아랫사람이 이를 따르니 나라가 위급해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²⁴⁾

인용문에서 고토바인의 성격을 상징하는 단어를 고르면 「무예(弓馬)」가 될

22) 로쿠다이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1198년설, 1203년설 등이 있다.

23) 武久堅(2001) 『平家物語の後鳥羽院—平家物語は何を語るか—』 『日本文芸研究』, p.20

24) 北原保雄 小川栄一編(1990) 『延慶本平家物語下』, 勉誠社, p.546

것이다. 그리고 『문장(文章)』은 고토바인이 모자라는 덕목이 된다. 인용은 검객을 좋아했던 오왕의 예를 들어 고토바인의 군주로서의 덕이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무예』가 무를, 『문장』이 문을 상징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앞서 살펴본 『로쿠다이쇼지키』의 본문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유계 시계루(弓削繁)는 위의 인용문을 들어 조큐의 난 이후 현실에 존재하는 천황과 당위로서의 제왕이 명확하게 구별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⁵⁾ 즉 고대적인 신국 사상이 기능하지 않는 현실, 그것은 막부에 의한 원, 천황의 유배로 상징되는데 그 현실을 해석하기 위해 관념으로서의 천황이 상징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천황관에서 볼 때 무를 숭상하는 고토바인은 군주로서의 덕이 결여된 군주인 것이다. 천황에게 군주로서의 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헤이케모노가타리』~『똥가쿠 원령담』에 있어 무예에 탐닉하는 고토바인 인물조형은 스토리 전개상 그다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대비적으로 『로쿠다이쇼지키』~『조큐키』의 경우 문장을 소홀히 하고 무예에 탐닉하는 고토바인의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조큐키』의 경우 앞서 인용한 공통 본문 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인다.

후세모노(伏物:미상), 고에우치(越内:미상), 수영, 하야와자(早熊:민첩한 움직임), 스모, 가사가케(笠懸:말 위에서 활쏘기)뿐만 아니라, 아침저녁 무예를 연마하시고 밤낮으로 무기를 만지시어 병란을 도모하셨다²⁶⁾

고토바인이 즐겨 연습했던 종목이 나열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단어도 있지만 수영과 활쏘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 전부 육체적인 움직임, 즉 무예와 관련된 것들이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밤낮으로 무기를 어루만졌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거사를 준비하는 고토바인의 모습을 눈으로 보듯이 상상할 수 있다. 반면에 『헤이케모노가타리』의 경우 고토바인이 무를 숭상

25) 弓削繁(1993) 『延慶本平家物語第六末「文学被流罪事」の周辺』 『岐阜大学国語国文学』, p.21

26) 栃木孝惟他校注(1998) 전게서, p.305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토바인이 거병을 준비하는 모습조차 서술되어 있지 않다. 무를 강조하는 공통 본문은 몬가쿠 원령담 전개상 꼭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잘라 붙인 생경한 느낌마저 든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로쿠다이쇼지키』~『조큐키』와 거의 비슷한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를 숭상하는 고토바인 인물조형이 몬가쿠 원령담의 저변을 흐르고 있다고 성급히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헤이케모노가타리』는 고토바인을 어떤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몬가쿠 원령담의 서두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몬가쿠 상인은 원래부터 무서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주상은 놀이에만 마음을 쓰시고 정사는 돌보지 않으신다. 구조도노(九條殿:藤原兼實)께서 은퇴하신 후에는 오로지 교노쓰보네(卿局)의 뜻대로 움직이시어 사람들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타카쿠라인(後高倉院)을 그 때 니노미야(二宮)라고 했다. “니노미야야말로 학문도 게을리 하지 않으시고 바른 이치를 앞세우시니 보위에 앉으시게 하여 세상의 정치를 하게 했으면 한다.” 몬가쿠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가마쿠라 대장군 요리토모(頼朝)가 계시는 동안은 어찌할 수 없었다.²⁷⁾

인용문은 몬가쿠가 모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 연유를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다. 몬가쿠는 군주로서 어울리지 않는 고토바인을 폐하고 고타카쿠라인을 옹립하고자 했다. <제덕>이 없는 고토바인을 폐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인용문과 내용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고토바인과 고타카쿠라인을 비교하는 내용이다. 고토바인은 『놀이(遊び)』에 열중할 뿐만 아니라 정무도 보살피지 않고 교노쓰보네의 뜻대로 공평하지 못한 정치를 했다. 이에 비해 니노미야, 즉 고타카쿠라인은 학문에 열심이고 바른 도리를 제일로 삼는, 한마디로 천황으로서 이상적인 인품이다. 몬가쿠의 생각 속에서 두 명의 군주는 훌륭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이 대비는 몬가쿠가 모반을 일으키고자 생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위의 인용은 표현은 다르지만 고토바인의 <제덕>의 결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쿠다이쇼지키』~『조큐키』의 서술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쪽

27) 北原保雄·小川栄一編(1990) 전계서, p.546

에서는 무를 통해 <제덕>의 결여를 언급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놀이」를 통해 제덕의 결여를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무에 경도된 고토바인 인물조형에 주목한 나머지 「놀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선행연구가 「놀이」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로쿠다이쇼지키』 『조큐키』에도 공통본문이 있고, 서적간의 전후관계, 영향관계 등 성립사정을 고찰함에 있어 무를 강조하는 인용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토바인과의 대비를 이룰 때 <문>대 <무>의 조합이 「학문」대 「놀이」의 조합보다 알기 쉽다. 또한 조큐의 난과 연결시킬 경우 <문>과 <무>의 조합이 훨씬 매력적이다.

그러나 무를 숭상하는 고토바인의 모습은 문가쿠 원령담 안에서 단 한번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는 원령담 전개에 있어 그다지 기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놀이」의 경우는 어떠할까? 「놀이」라는 단어가 원령담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자 한다. 헤이안 문학에서 「놀이」는 흔히 한시, 와카(和歌), 음악, 유희 등을 가리키며, 특히 관련 음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역시 「놀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실제로 고토바인은 다양한 재능의 소유자로 와카는 물론, 비파, 피리와 같은 악기 연주, 시라보시(白拍子) 노래의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원령담 내에서 「놀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본문 중에 자주 사용되는 「깃초카자(及杖冠者)」가 그것이다. 「깃초카자」란 깃초를 치면서 노는 젊은이를 조롱하는 말로, 문가쿠가 고토바인을 폄하하면서 자주 사용한 단어이다. 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주상이 깃초를 좋아하셨기에 문가쿠가 깃초카자라 한 것이다.
- ② 분통한 일이다. 깃초카자에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다니.
- ③ 깃초카자에게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하였으니 이 수모를 되갚고자 하는데,

「깃초카자」가 사용된 세 용례이다. ①은 문가쿠가 왜 고토바인을 「깃초카자」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유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도(佐渡) 유배에서

돌아온 몬가쿠는 진고지(神護寺) 장원 문제로 다시 고토바인과 충돌하게 되고, 그 울분을 「깃초카자」라는 말에 의탁하고 있다. 이는 몬가쿠 특유의 악담이라 할 수 있다. ②는 오키에 유배되었을 때의 몬가쿠의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③은 몬가쿠 원령이 묘에 상인(明惠上人) 앞에 나타나 연판장에 쓸 종이를 구하는 이야기 속에서 고토바인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세 개의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몬가쿠는 고토바인에 대한 원한을 강하게 표명할 때 「깃초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래 몬가쿠 원령담 속에서 고토바인은 「주상(當今)」 또는 「오키인(隱岐院)」으로 호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몬가쿠 발화 속에서는 「깃초카자」라고 달리 명명되고 있다. 「깃초카자」는 몬가쿠와 고토바인이 장원문제로 대립할 때도, 오키 유배에 처해질 때도, 그리고 묘에 상인의 꿈속에서도 고토바인을 상징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몬가쿠 원령담 전개에 있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깃초」와 관련지어 생각해야만 몬가쿠의 「주상은 놀이에만 마음을 쓰고」라는 고토바인 평이 살아 숨 쉬게 된다. 몬가쿠 원령담에서 고토바인의 성정을 상징하는 「놀이」는 「깃초」와 관련될 때 보다 깊은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무를 강조하는 표현이 조큐의 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각하는 반면, 「놀이」를 강조할 경우 조큐의 난의 구체적인 양상과의 관련성은 자연히 흐려지게 된다. 참고로 『조큐키』에는 고토바인의 「놀이」로 「깃초」가 아닌 시라보시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너무나 놀이에 심취하시어 사방의 시라보시를 부르시어 당번을 정하게 하시고」 「간다(神田), 고덴(講田) 열개 중 다섯 곳을 없애어 시라보시에게 주시었다」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고토바인의 지나친 시라보시 총애는 『조큐키』의 경우 시라보시 가메기쿠(龜菊)에 얽힌 장원문제에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몬가쿠 원령담은 「놀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군주로서의 자질을 문제시하고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관점을 『구칸쇼』의 고시라카와인 평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노미야(四宮)인 고시라카와인은 어머니가 다이켄몬인(待賢門院)으로 신인(新院:崇徳院)과 같은 배에서 태어나셨다. 소문이 몹시 무성할 정도로 놀이를 즐기시어 즉위할 만한 기량이 아니라고 (아버지인 도바인(鳥羽院)은) 생각하셨는데²⁸⁾

고시라카와인이 이마요(今様)를 비롯한 예능에 경도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지엔(慈圓)은 고시라카와인의 즉위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놀기(御アソビ) 좋아하는 성정이 즉위에 방해가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즉 고시라카와인의 이마요 사랑은 도바인으로 하여금 고시라카와인을 『즉위할만한 기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몬가쿠 원령담에 보이는 고토바인 평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놀이』에 심취하여 정무를 게을리하는 군주의 모습과 무예를 연마하여 거병하는 모습과는 그 내용과 이미지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무>도 <놀이>도 고토바인의 <제덕>의 결여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덕이 없는 군주 고토바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몬가쿠의 판단과 행위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이다. 바꿔 말하면 천황과 원은 신성불가침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군주로서의 덕이 요구되는 존재로 탈바꿈되었다는 것이다. 아마테라스 오카미의 자손에게도 군주로서의 덕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헤이케모노가타리』~몬가쿠 원령담을 통해 읽을 수 있다.

3. 결론

13세기 일본의 정치적 상황은 막부의 강대화와 왕권의 약화로 대변할 수 있다. 막부에게 결정적인 힘을 실어준 사건이 본고에서 살핀 조큐의 난이다. 조정과 천황가에 치명타를 안겨준 조큐의 난을 획책한 고토바인에 대한 평가는 사건 직후 흑독하기 그지없었다. 『로쿠다이쇼지키』의 무를 숭상하는 덕이 없는 군주 고토바인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실패한 전쟁의 책임을 짊어진 채 고토바인은 유배지 오키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연에 의해 황통이 다시 고토바인의 손자 고사가 천황에게 돌아오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견해가 나오기 시작한다. 또한 고다이교 천황의 친정(親政)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은 고토바인이 일으킨 조큐의 난에 새로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소위 성군 고

28) 岡見正雄他校注(1967) 『日本古典文学大系 愚管抄』、岩波書店、p.216

토바인론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대 제왕 이야기』와 『마스카가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비교적 확고한 역사의식에 바탕을 두고 쓰인 이들 역사서 속의 고토바인 평이 텍스트를 수미일관하는 것과 달리 군키 모노가타리 속의 고토바인 인물은 판본에 따라, 그리고 장면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전개된다. 본고에서는 고토바인 관련 군키 모노가타리 중 하나인 엔교본 『헤이케모노가타리』~뽀가쿠 원령담을 중심으로 고토바인 인물조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뽀가쿠 원령담 속의 고토바인은 『로쿠다이쇼지키』와 마찬가지로 <제덕>이 결여된 군주로 설정되고 있지만, 키워드가 무가 아닌 놀이로 바뀌어져 있다. 작품 속에 무예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도 난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모습도 그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뽀가쿠 원령에 의한 난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고토바인과 조큐의 난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로쿠다이쇼지키』와는 다른 엔교본 『헤이케모노가타리』~특유의 조큐의 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로쿠다이쇼지키』는 고토바인을 덕이 없는 군주로 잘라냄으로 인해 천황의 신성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하면, 『헤이케모노가타리』는 고토바인과 조큐의 난 사이의 거리를 가능한 한 멀리 확보함으로 인해 천황의 신성성, 왕권의 불가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토바인 평을 중심으로 1240년 전후의 역사서와 모노가타리를 고찰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모노가타리의 경우 『헤이케모노가타리』~뽀가쿠 원령담만을 분석하는데 그쳤는데, 특히 『조큐키』의 여러 판본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토바인 원령에 대한 언급 역시 최소화했는데, 고토바인 원령담의 생성과정과 『헤이케모노가타리』~『호겐모노가타리』에 실려 있는 스토쿠인 원령담의 생성과정을 비교 고찰하고, 원령에서 덴구로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佐藤泉(1989) 『『承久記』考察—後鳥羽院の周辺』 『軍記と語り物』25号、p.64

- 武久堅(2001) 『平家物語の後鳥羽院—平家物語は何を語るか』 『日本文芸研究』、p.20
西沢正二(1967) 『『増鏡』に描かれた後鳥羽院』 『日本文芸論稿』、pp.36~38
藤原正彦(2005) 『国家の品格』、新潮社、p.121
松林靖明(1985) 『『五代帝王物語』の怪異譚—後鳥羽院の影—』 『青須我波良』、p.3
山田雄司(2001) 『崇徳院怨霊の研究』、思文閣出版、pp.200~201
弓削繁(1993) 『延慶本平家物語第六末「文学被流罪事」の周辺』 『岐阜大学国語国文学』、p.21
_____(1999) 『『承久記』と鎌倉期の歴史物語』 『軍記物語研究叢書』、汲古書院、p.42
龍肅訳註(1997) 『吾妻鏡(四)』、岩波書店、p.205

- ❖ 투고일 : 2008. 6. 30
- ❖ 심사일 : 2008. 7. 29
- ❖ 심사완료일 : 2008. 8. 1